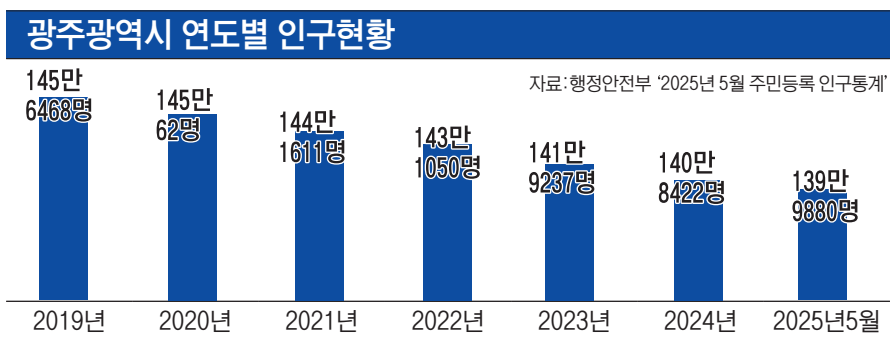
광주시 인구 2004년 이후 처음 '140만명' 붕괴

행안부 '5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139만9880명… 전달대비 947명 ↓
1분기 순유출 전국 시·도중 '최다'
청년유출 원인…실효적 정책 필요



광주광역시 140만명 인구가 21년 만에 무너졌다. '140만 도시'라는 상징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지역 소멸 위기와 광역 도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5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139만9880명으로 전달보다 947명 줄었다. 불과 한 달 사이 1000명 가까운 순감소가 발생하며 지난 2004년 이후 지켜온 140만 선이 무너졌다.

자치구별로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광산구(369명)를 제외하고 △동구 108명 △서구 313명 △남구 208명 △북구 68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47만500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1만815명(총인구 140만8422명)이 빠졌고 올해는 5개월 만에 약 8500명이 줄었다. 감소 속도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순유출 인구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광주(4945명)를 비롯해 경남(4729명), 경북(3524명) 등 7개 시·도가 순유출을 기록했고 인천(1만1091명), 서울(6129명), 경기(5588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을 보였다.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함께 가파른 청년층 유출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광주시는 최근 한 달 사이 20~30대 인구가 814명 줄었다. 이는 전체(1651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일자리나 주거 기반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도 냉정하다.

최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전남대 대학원생 임정현씨는 "누군가는 부모 도움으로 서울에 집을 구하지만 누군가는 창문 없는 원룸에서 월세 40만원을 낸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건 특혜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청년들의 고민과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단순히 인구만 늘릴 게 아니라,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정주 여부는 △생활 편의성 △공공시설 접근성 △운동·여가 환경 △동네의 안전과 친밀감 등 '삶의 질'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고서에는 "정주 의사를 밝힌 청년일수록 생활여건 만족도가 높았다"며 "일자리나 집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 안전, 여가 같은 일상의 질이 갖춰져야 청년이 지역에 남는다"고 명시됐다.

광주시 역시 문화 인프라 불균형, 청년정책 실효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도시들의 인구가 '무덤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함께, 국가 차원의 대대적 균형 발전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5·18 역사왜곡 게임, 국내 접속 차단

온라인 게임 '스팀' '광주 런닝맨'
해외 접속은 여전히 가능한 상태
5·18재단, 외교부 등에 대응 요청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게임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3일 5·18기념재단은 미국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유통 중인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게임 '광주 런닝맨(Gwangju Running Man)'의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게임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배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사용하는가 하면, 계엄군과 광주 시민이 서로를 공격하는 설정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내용에는 △광주 시민을 흉악범·폭력배로 묘사 △계엄군의 폭력을 정당화 △시민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어, 역사 왜곡과 함께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돼 왔다.

해당 게임은 지난 3월 시민 제보로 처음 확인됐다. 재단은 즉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이달 초 국내 접속 차단이 이뤄졌다. 하지만 스팀을 통한 해외 접속은 여전히 가능한 상태다.

재단은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국제적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단 측은 "해외 플랫폼은 자율 규제에 한계가 있어,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6월 중 외교부에 정식 대응을 요청하고, 게임 삭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유사 이름의 다른 게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의뢰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에는 역사왜곡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5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5·18 폄훼 게임 '그날의 광주'가 발견돼 재단과 광주시가 해당 개발자를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게임은 제보 학생을 조롱하는 등 2차 가해 요소까지 포함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해당 게임들은 국내 청소년과 외국인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할 위험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내일 세계 환경의 날… '푸른길 작은 축제'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동구 푸른길공원 일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광주광역시 동구 푸른길공원에서 시민참여형 환경 체험행사 '푸른길 작은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뒤편 푸른길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환경 교육 및 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보호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는 △전자폐기물 수거와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결합한 '고물과 보물 사이' △광주천과 영산강에 서식하는 수달을 주제로 한 생태 퀴즈 '알쏭달쏭 수달 퀴즈' △양말목을 활용한 '행운의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채식먹거리 나눔' △토종씨앗과 천연비료를 알리는 '도시농부의 토종씨앗'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소형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어폰, 충전기 등 소형 전자기기를 3개 이상 가져오면 실리콘 접이식 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행사 사전접수는 구글 폼 링크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gj.ekf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실천을 시민과 함께 이어가고자 마련한 축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생태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지난 2일 오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 제공

진도항 일가족 참극… 혼자 도망친 가장 '살인죄' 적용

수면제 먹은 아내·두아들 사망
40대 "빚 많아 힘들었다" 진술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피의자는 "빚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진도 해상 추락 사고로 일가족 세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순 추락 사고로 보던 관점을 바꿔, 가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살해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에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지씨는 "차를 타고 같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 "많은 빚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씨가 차량 돌진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 태우고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안에서 진도로 이동하던 중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먹였다고 진술했다. 차량은 다음날인 2일 오후 8시7분께 진도항에서 약 30m 떨어진 바다에서 인양됐으며, 아내와 아들 2명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지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뭍으로 나와, 지인 50대 남성 A씨의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해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4시간 만인 2일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지씨를 검거했다. A씨 역시 같은 장소에서 함께 붙잡혔다. 지씨는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원룸에서 아내, 자녀와 함께 살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보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씨의 아들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끊기자,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가족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가 진도항 인근으로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가족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아내와 두 아들의 1차 검시에서 시신에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광양 점집서 무속인 부부 숨진 채 발견

전남 광양의 한 점집에서 무속인 부부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됐다.

3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의 한 주택 내 점집에서 A씨(59)와 그의 아내 B씨(61)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두 사람이 이미 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신고자는 경찰에 "점을 보러 왔다가 부부가 나란히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농약병이 발견됐으며, 당국은 두 사람이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부부가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